

◆ 북미

- 미국 홍수보험 가입률,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 미국의학협회, 보험사에 대한 평가자료 발표

◆ 유럽

- ABI, 연금제도의 잦은 변화로 인해 연금가입자 보호가 필요
- 영국 자동차보험 시장, 가격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준비금은 증가

◆ 일본

- 니혼생명, 기금규모 9.5조엔으로 확대
- 대형 손보사들은 개인 자동차보험료 인상, 통신판매회사는 반대로 인하 추진

◆ 중국

- 중국, 투자처 찾고 있는 여유자금 보험으로 이동
- 중국 쓰촨성(四川星) 대지진 보험업계 영향 제한적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미국 홍수보험 가입률,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 최근 미 중서부 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보험 정보원(III)은 미국 국민 중 단 17%만이 홍수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밝힘.
- 이는 전년도의 14%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은 수치이며, 홍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북부 주들의 경우 작년 9%의 가입률에서 8%p 증가한 17%가 홍수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응답함.
- 이번 설문 결과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홍수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III의 대변인인 Jeanne Salvatore는 언급함.
-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 의하면 내륙홍수(inland flooding), 돌발홍수, 계절성 폭우를 포함하는 홍수 피해는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III의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미국 북동부지역의 홍수보험 가입률은 2007년 10%에서 10%p 증가한 20%를 나타냈으며 서부지역의 가입률은 2007년 13%에서 2%p 증가한 15%를 나타냈음.
-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2007년 20%였던 가입률이 2008년 17%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멕시코만 연안 주들의 홍수보험 갱신율이 감소했다는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의 데이터와 일치함.
- 이러한 결과는 III가 지난 5월, 4일간 1004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 짐.

(Insurance Journal, 6/16)

□ 미국의학협회, 보험사에 대한 평가자료 발표

- 미국 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는 지난 월요일 연차총회에서 의사들이 건강보험 사업자로부터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의료비를 지불받는지에 초점을 둔 평가자료를 처음으로 발표함.
- 협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총수입의 14%가량을 의료비와 관련한 잡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 이번 자료가 의사들의 보험금 청구 과정상의 비용을 줄이고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의사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불필요한 행정상의 비용 감소로 환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실제로 Marcy Zwelling이라는 의사는 보험금 청구 문제 때문에 4년 전부터 환자들로 부터 직접 연간회비를 받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줄었지만 환자들을 돌볼 시간이 많아졌다고 만족한다고 밝힘.
- 평가 자료는 Medicare와 7개 민간 건강보험사들을 비교하여 작성되었으며 임의로 선택된 300만 개의 보험금 청구건수를 토대로 이루어졌음.
- 조사결과 UnitedHealthcare사가 의료 서비스의 약 62%만을 계약대로 지불하여 계약 준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etna, Medicare는 각각 71%, 98%의 준수율을 보임.
- UnitedHealthcare의 대변인은 의사의 진료행위 시점과 보험사에 대한 의료비 청구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있어 의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밝힘.
- 미국 건강보험협회(America's Health Insurance Plans)는 보험금 청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의사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보험사가 의사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의사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인 반면 AMA의 이번 발표는 보험사와의 협의를 생략했다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냄.

(Newsweek, 6/16)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ABI, 연금제도의 잦은 변화로 인해 연금가입자 보호가 필요

- 영국의 연금관련 주요 기관들에 따르면, 연금수익이 수많은 직장근로자들의 급여에서 비롯된 만큼 연금관련 법안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안정화 된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함.
- 영국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제도를 세제혜택 등을 주어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잦은 연금개혁을 하고 있음.
- 현재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인 국가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과 국가 제2연금(state second pens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로서 하여금 세제 혜택을 통한 은퇴자금 축적 기회 제공하고자 사적연금도 병행하고 있음.
-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스테이크홀더연금*(stakeholder pens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제외제도**(contract-out)로 특징 지워짐.
- * 영국에만 있는 연금으로 중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DC형 연금제도
- **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연금에 대해 퇴직연금 감독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시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 가입을 면제해 주는 제도
- 2005년 11월 터너 2차보고서에서 사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연금저축제도(National Pension Savings Scheme, NPSS)를 신설함.
- 이는 최저생활보장과 안정된 제도 운영을 위한 현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이며, NPSS는 2007년 Personal Account로 명기되면서 2012년에 도입예정임.
- 이런 법안은 다른 연금제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인계좌(personal account)에 가입범위의 제한(최저 5,035파운드에서 최고 33,540파운드)이 적용된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함.

- 이에 본 기관들은 수많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을 빈번한 제도 변화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호하고자 상원을 재촉할 것임.
- 현재 초안으로 발표된 연금 법안에 따르게 되면, 사업자는 개인계좌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용을 해야만 하는 반강제 규정(근로자는 급여의 4%, 사업자 3%, 정부 1%씩을 부담하며,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전원을 자동적으로 가입 후 탈퇴 허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또 다른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사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잦은 규정 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으며, 또한 본 법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이미 많은 비용이 사용되었다고 전함.

(ABI & NAPF Press Release, 6/17)

□ 영국 자동차보험 시장, 가격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준비금은 증가

- 전문 금융서비스 기업인 딜로이트에서는 2007 자동차 보험회사 사업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시장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고 발표함.
- 이는 보험회사들의 지속적인 보험료율 상승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인수 수익률 관점에서의 자동차 보험시장은 이미 바닥세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임.
- 또한, 2008년 자동차 보험시장의 기초수익률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익률 개선이 결국엔 상업용 차량의 보험요율을 상승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귀결되는 것이라 전함.
- 2007년 영국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에 비해 1%p 상승한 102%를 기록하였음.
- 이는 상업용 차량의 합산비율은 2006년 83%에서 2007년 98%로 상승하면서 보험인수 수익은 더욱 나빠졌으며, 개인용 차량의 합산비율이 104%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준비금 실적은 이 같은 현 경쟁시장과 상치되는 결과로써, 2006년 준비금은 수입보험료의 10%를 기록한 반면, 2007년에는 당기 수입보험료의 12%가 되는 전례 없는 수준을 보였다고 전함.
- 딜로이트의 보험관계자인 Catherine Barton은 2년 연속 10억 파운드에 달하는 준비금 실적을 기록한 것은 자동차시장 관계자들 대부분이 놀랄만한 일이라며, 현시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기업만이 기대했던 수준이었다고 전함.
- 딜로이트는 2008년 영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 기초 합산비율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연간 수입보험료는 12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임.

(Insurance Times, 6/19)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니혼생명, 기금규모 9.5조엔으로 확대

- 일본 최대 생보사인 니혼생명(日本生命)보험은 18일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금을 500억엔 증자하여 기금의 총 규모가 9,500억엔이 되었다고 밝힘.
- 향후 니혼생명은 기금을 활용하여 해외 보험사의 M&A 등을 추진하며 사업 확대를 도모할 계획임.
- 이번에 실시한 증자대상은 기금과 기금 상각에 따라 증액되는 기금 상각 적립금이며 다음 달 1일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내년도 안에 실시할 예정임.
- 니혼생명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증자를 실시하여 2010년도까지 기금규모를 1조엔으로 늘리기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4조 7000억엔까지 기금을 적립할 계획임.
- 기금 증자를 통해 자산운용 환경악화 리스크에 대비하고 수익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및 신규사업 투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일본 2위의 생보사인 다이이치(第一)생명은 2010년도까지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자금조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이지만 니혼생명은 기금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을 축으로 상호회사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기금은 보험업법에서 상호회사에만 인정되고 있으며, 기금은 외부에서 조달한 후 상환할 의무가 있지만 기금 상환 시 그 금액을 기금 상각적립금으로서 내부 유보할 수 있음.
- 상호회사는 이 기금 상각적립금을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FujiSankei Business I, 6/19)

□ 대형 손보사들은 개인 자동차보험료 인상, 통신판매회사는 반대로 인하 추진

- 일본의 대형 손보사들이 보험료 할인 확대로 악화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신상품 개발 및 판매에 맞추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임.
- 또한 유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의 자동차 관련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통신판매 손보사로의 전환이나 신설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비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도쿄해상(東京海上)니치도(日動)화재는 7월부터 보험료를 평균 약 1.5%,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화재보험도 7월부터 평균 약 1.0% 인상할 계획이며 손해보험재팬은 4월부터 평균 약 2.9% 인상 중임.
- 각사 모두 신상품에 새로운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고 도쿄해상은 7년만에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2년만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됨.
- 도쿄해상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1998년 보험료 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의 수지가 악화되었기 때문임.
- 무사고 할인 확대시행과 경자동차 증가 등으로 보험료 단가가 낮아져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손해율이 각 회사에서 일제히 악화되고 있음.
- 다만,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 중심의 손보사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방침으로 아메리칸홀보험은 보험료 인하를, 소니손해보험과 미츠이다이렉트손해보험은 현행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계획임.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률

회사명	평균 인상률	손해율	
		2006	2007
도쿄해상니치도화재	1.5%	61.6%	65.5%
손해보험재팬	2.9%	65.1%	64.3%
미츠이스미토모	1.0%	65.1%	63.1%

(FujiSankei Business I, 6/21)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투자처 찾고 있는 여유자금 보험으로 이동

-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자산운용 측면에서 참담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상품에 대한 인기가 치솟으면서 수입보험료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업계에 희비가 교차되고 있음.
- 수입보험료 측면에서는 지난5월 말까지 베이징(北京) 지역 은행창구를 통해 판매된 보험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지난해 판매액의 70~80% 수준에 이르고 있어 방카슈랑스의 약진이 두드러졌음.
- 주력상품에 있어서도 지난해에는 주식투자와 연동된 투자형 보험상품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금년에는 소비자들이 고정수익이 보장되는 배당형이나 최저이율이 보장되는 안정형 보험상품을 선호하는 등의 변화를 보임.
- 이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금년 초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설 때 자금을 인출했으나, 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자 안정성이 높은 정기예금과 보험상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임.
- 급격한 수입보험료 증가에 대해 일부에서는 올림픽 특수를 노린 보험회사의 마케팅전략 때문이라는 분석이며, 보험회사마다 올림픽 개최 전에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면서 일시적으로 수입보험료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시됨.
- 이는 상당수 보험회사가 올림픽 이후 별다른 마케팅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기존에 계획했던 것마저 취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음.

(금융시보, 6/19)

□ 중국 쓰촨성(四川省) 대지진 보험업계 영향 제한적

- 일반적으로 대형재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금 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 보감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6.16(월) 기준 보험회사가 접수한 지진관련 보험금 신청 건수는 총 25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약 3.2억 위안의 보험금이 기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중국생명(中國人壽), 평안생명(平安人壽) 중국인민보험공사(中國人保) 등 농촌지역 판매망이 잘 갖춰진 국내 대형 보험회사들에 지급금이 집중되었음.
- 경제참고보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대부분의 보험회사 책임자들이 '비록 앞으로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받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전역을 놓고 보면 쓰촨성은 보험침투도와 보험심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대부분 보험가입율이 현저하게 낮은 시골지역이기 때문임.
- 한편, 지진 발생 후 소비자들의 보험의식이 제고되면서 오히려 보험가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쓰촨성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5월 한 달 동안 약 37.2%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폭발적인 가입율을 나타내고 있음.
- 중국에는 대형재난이 발생했지만 중국 보험업계는, 지급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 이른바 '지진특수'를 누리고 있음.

(경제참고보, 6/19)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6.13(금)	08.6.20(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74	5.72	-0.02
	美 10년국채	4.03	4.79	4.14	-0.10
	英 10년국채	4.51	5.14	5.06	-0.08
	日 10년국채	1.51	1.87	1.76	-0.11
주가	韓 KOSPI	1,897.13	1,747.35	1,731.00	-0.94%
	韓 KOSDAQ	704.23	622.15	609.16	-2.09%
	美 DJIA	13,264.82	12,307.35	11,842.69	-3.78%
	美 Nasdaq	2,652.28	2,454.50	2,406.09	-1.97%
	英 FTSE100	6,456.90	5,802.80	5,620.80	-3.14%
	獨 DAX30	8,067.32	6,765.32	6,578.44	-2.76%
	佛 CAC40	5,614.08	4,682.30	4,509.27	-3.70%
	日 Nikkei225	15,307.78	13,973.73	13,942.08	-0.23%
	中 상해종합	5,261.56	2,868.80	2,831.74	-1.29%
	대만 가권	8,506.28	8,105.59	7,902.44	-2.51%
	홍콩 항셱	27,812.65	22,592.30	22,745.60	0.68%
환율	원/달러	938.2	1,029.90	1,028.10	-1.80
	원/100엔	833.33	954.63	950.72	-3.91
	엔/달러	112.58	107.88	107.31	-0.57
	달러/유로	1.4722	1.5454	1.5634	0.0180
	위안/달러	7.3041	6.9075	6.8775	-0.0300